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 사 시 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30 (교 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 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본당 시노드 현황 및 폐막 미사

시노드 개막 미사	2월 6일(일)
본당 시노드 소모임	110개
그룹의견 (4월 28일 기준)	82건
폐막 미사	5월 1일(일)

● 알 림

- 4월 16일(성 토요일)부터 본당 알레그로 카페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 다음 주(5월 8일) 성소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5월 11일(수) 저녁 7시 미사 후 본당 임원 모임이 식당에서 있습니다.
- 5월부터 본당 소모임 및 반모임을 재개합니다.
- 유아 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 병자 영성체 신청받습니다.
 - 유아세례, 태중의 아기 축복식 : 토요일 오전 11시
 -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개별 예식)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교 육 / 강 좌

- 살레시오와 꿈(CUM) 후원 미사
 - 일 시 : 5월 2일(월), 10시
 - 지도신부 : 심재현 치일로 신부님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5월 7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 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04/01~04/30)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3구역 2반	김덕기	젼 마	부산/석포
22구역 3반	이수연	유리안나	의정부/신원동

외짝 교우 예비신자 교리반

- 예비모임 : 5월 1일(일) 교중 미사 후 강당
- 기간 : 5월 8일(일) ~ 7월 24일(일), 총 12회
- 시간 : 주일 오전 9시~10시(주일 교중미사 참석 의무)
- 세례식 : 7월 30일(토) 오후 2시

● 성령 기도회 모임

- 일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40분
- 장소 : 제 1교실
- 문의 : 신문성 마리아베드로 010-6742-2954

☞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

- 올바른 인간의 길을 알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력
- 양심에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의지력
- 당신의 뜻을 따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길이 생명의 길이고 멸망의 길인지 제시, 하지만 궁극적인 선택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유보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맛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협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5/8)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합니다.	청 소	1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4월 20일 ~ 4월 26일)

교 무 금	9,895,000원
주일헌금	4,663,900원
오라토리오 2차 헌금	1,436,000원
감사헌금	임종남10만원 김수자10만원 영미경10만원 윤남기 5만원 정영자 1만원 김성해5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5/1	손진희	심재순 신종구	최승일 손정주
5/8	구민서	조홍환 김진수	안상록 정연희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5/1	이화봉	최상남 장인홍	최영만 김광수	
5/8	이운영	이화봉 최상남	최승일 김영배	

화답송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자유주의적 접근의 이점과 한계

163. 흔히 사회를 그저 공존하는 이익들의 총합으로 바라보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접근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와 문화적 유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포함하고 있는 ‘민중’의 개념을 거부합니다. 어떤 이는 공통된 이야기에 뿌리를 두지 않은 채 자유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사회의 가장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수호하는 이들은 대중 영합주의자로 비난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중의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불필요한 이분법을 조장합니다. 사회 조직, 과학, 시민 사회 제도들이 거부되거나 경시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민중’의 개념과 ‘이웃’의 개념이 순전히 추상적이거나 낭만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164. 반면 애덕은 두 차원, 곧 추상적이고 제도적인 차원 모두를 통합합니다. 애덕은 제도, 법률, 기술, 경험, 전문 지식, 과학적 분석, 행정 절차, 기타 등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역사적 변화의 효과적인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생활은 공공질서로 보호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과 법에 기초한 안정된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그리고 분업, 상업 교류, 사회 정의, 정치적 시민권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복지를 누릴 수 없다면, 가정은 참된 온기를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5. 참된 애덕은 이 모든 요소를 담아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쏟습니다. 참된 애덕은 분명 개인적 만남 안에서 표현되지만, 조직적이고 자유로우며 창의적인 사회 제도들이 창출하는 다양한 자원을 통하여 멀리 있거나 무시당한 형제자매에게도 닿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한 사마리아인도 그가 개인적으로는 줄 수 없는 도움을 제공할 가까운 여관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웃 사랑은 실질적이며, 가난하고 불우한 이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에 필요한 자원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개인주의적 실행 방식과 비효율적인 절차와 연결된 좌파 이념이나 사회 원칙은 소수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반면에, 낙오된 다수는 다른 이들의 선의에 의존한 채 남겨집니다. 이는 가난한 나라에서 고통받고 죽어 가는 버려진 이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려면, 형제애의 정신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는 모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 하나의 용인되는 방법론, 하나의 경제적 처방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가장 엄밀한 학문도 다양한 길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